



개구쟁이들의 옷놀이 추석을 사흘 앞둔 24일 광주시 북구 중흥어린이집 어린이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자신의 키 만한 옷을 던지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치마 입어라” “지각비 내라”...알바 인권침해

광주 사업장 392곳 중 289곳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56곳 최저임금도 무시...광주시, 근로법 교육 강화키로

“1분이라도 지각하면 30분에 해당하는 알바비를 깎았어요.”
 “차가 막혀 30분정도 늦었다가 주인에게 벌금으로 1만원을 뜯겼다.”
 “PC방에서 알바했는데 꼭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강요했어요.”
 “3개월 전부터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고, 만약 그만두면 다른 곳에 취업할 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문서를 보낼 것이라고 협박했어요.”

“식사시간이 5~10분정도밖에 안 된다. 조금 늦으면 밥을 많이 뜨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혼났어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인권 침해와 벌금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7~8월 두 달 간 여름방학을 이용해 광주지역 사업장 392곳을 대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알바 사업장 392곳 중 289(73.7%)곳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다더라도 주지 않았다. 또 113곳(28.8%)은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무시 가산 수당을 주지 않았고, 56곳(14.3%)은 법적 의무사항인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다.
 최저임금에 답하지 않는 알바생이 60%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사업장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34곳은 구인공고를 내면서 시급이나 업무, 근무시간을 실제로 다르게 허위 표시했다.
 인권침해도 심각했다. 서빙을 하다가 유리컵 하나를 깨 아르바이트생에게 유리컵 비용으로 일당을 빼앗고, 가게로 출

근하지 않고 CC-TV로 알바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는 주인도 있었다. 육설도 다반사였다.
 광주시는 이번 모니터링단 점검자료를 토대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개선 캠페인,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 대학생 15명이 2개월간 참여해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바 노동자와 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의 교육 강화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상담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실종 40대 지적장애인 여성 집으로

6개월간 행방 숨긴 60대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24일 실종 신고된 사실을 알고도 지적장애인 여성을 6개월간 숨겨 둔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영암군의 돼지농장에서 실종 신고된 지적장애인 A(여·

40)씨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A씨가 가출한 후 만난 남성을 농장 근로자로 채용해 일을 시키던 중 A씨가 집으로 돌아갈 경우 함께 그만둘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의 행방을 좇아 지난 8일 농장을 찾은 경찰에게 “A씨를 전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뒤 광주시 북구 중흥동 자신의 주택에 숨겨두기도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씨는 지난 2014년 12월25일 오후 3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자신의 집에서 나간 뒤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 경찰은 실종여성의 소재를 추적 하던 중 지난 8일 실종여성 A씨가 영암군에 전입신고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농장주 김씨가 A씨를 모른다고 잡아떼자 김씨 소유의 광주 집에서 수일간 잠복한 끝에 실종 여성을 발견했다. 농장주 김씨는 A씨를 전입신고할 경우 영암군이 일정기간 귀농 정착자금을 주는 것을 알고서 이를 타내려다가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긴급상황 소방관에 교통정리권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경찰과 같이 교통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개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진입할 수 있게 소방관이 특정 차량의 차량을 정지하거나 통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2 해질 16:24
 해질 18:26 해돋이 02:43

교통 안전 주의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18/28	보성	구름많음	16/26
목포	구름많음	19/26	순천	구름많음	18/27
여수	구름많음	20/25	영광	구름많음	17/27
나주	구름많음	16/29	진도	구름많음	18/26
완도	구름많음	19/26	전주	맑음	16/28
구례	구름많음	16/28	군산	맑음	18/27
강진	구름많음	17/27	남원	맑음	14/27
해남	구름많음	17/27	축산도	구름많음	19/23
장성	구름많음	16/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0.5~2.0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2.5	북~북동 1.0~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2.5	북~북동 1.0~2.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60
빨래	8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1:27	05:01
	00:00	17:07
여수	밀물	썰물
	06:38	00:42
	19:19	12:37

◇주간 날씨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10/1(목)	2(금)
18/29	16/28	15/28	15/28	15/25	16/23	14/24

태풍 북상...추석 연휴 섬지역 영향권

추석 연휴 기간 전남 섬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귀성·귀경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점차 북상하는 제21호 태풍 ‘두위안(DU-JUAN)’의 영향으로 오는 26~28일 사이 남해상에서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다. 기상청은 오는 26일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태풍 영향권에 들면 서 27일을 전후해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예보했다.
 특히 27일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파고가 2~4m에 이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이동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귀성이나 귀경길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조선대 개교 69주년 기념식

개교 69주년을 맞는 조선대학교가 24일 학교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서재홍 총장을 비롯, 김희관 광주교감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수중 부총장의 조선대학살림동지회 임회권유문 낭독, 연혁 낭독, 장기근속자, 공로상 등 시상, 강현욱 이사장과 서재홍 총장의 기념사 등으로 진행됐다.
 서재홍 총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조선대학교의 지난 69년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창조 의의였으며 내년 개교 70년을 맞아 개교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시대

62년 전통의 광주·전남 대표신문 光州日報
 知識을 넘어 智慧를 공유합니다.

선물같은 **추석** 을 나눕니다

아름다운 삶과 가치있는 성공을 가꾸는 리더들의 고품격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3기 원우(원우회장 이학재 아로마라이프 대표이사) 일동